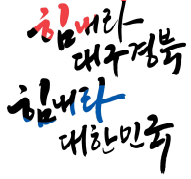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4. 9(목)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 간선도로과	담당 자	과장 이정기, 사무관 김강문, 주무관 노영수 ☎ (044) 201-3888, 3907, 3893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9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비 오는 날 도로,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다

### - 배수성(저소음)포장 활성화 추진...실시공 확대, 전문가 그룹 운영 등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, 시인성 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한다.
- 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(4→20%)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'저소음포장'이라고 불렸다.

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5px;">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 padding: 2px;">일반포장</span>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 padding: 2px;">배수성 포장</span> </div>	
배수성포장과 일반포장 비교	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원리

- 이러한 배수성포장은 2000년대 초반 도로의 배수를 주된 기능으로 일반국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,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.

\* (일반국도) '08년까지 265.9km, 307.9억원 시공, 2009년 이후 도입량 감소

- 아울러, 배수성포장은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, 발주처는 유지관리, 내구성, 소음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력에서 유리한 방음벽을 선호하여 배수성포장의 적용은 미미하였다.

\* 민원인도 소음저감 효과가 불확실한 배수성포장보다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
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관·학·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'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\*(이하 협의단)'을 구성('19.10월, 총 7회 논의)하여 실시공 확대,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\* (구성) 국토교통부 도로국장(단장), 한국도로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아스팔트학회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학계 전문가 등

### ① 일반국도, 고속국도에 실시공 확대('20년, 51.2km/1차로)

-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2020년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(3개 구간, 28.4km/1차로)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(3개 구간, 22.8km/1차로)에 배수성포장을 적용\*하고,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\* 사업자는 발주자가 소음저감효과, 경제성, 시공성 등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

### ② 배수성포장 관련지침, 시방서 개선 등

- 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, 배합설계 등의 개선사항은 전문가, 관련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검토하여 '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('11~)'에 반영(~'20)하고,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.

- 아울러, 신기술, 신공법 등 일부 배수성포장 공법 적용에 보수적이었던 고속도로 '전문시방서' 및 '공사시방서'의 배합설계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③ 특정공법 심의기준 및 입찰구조 개선 검토(장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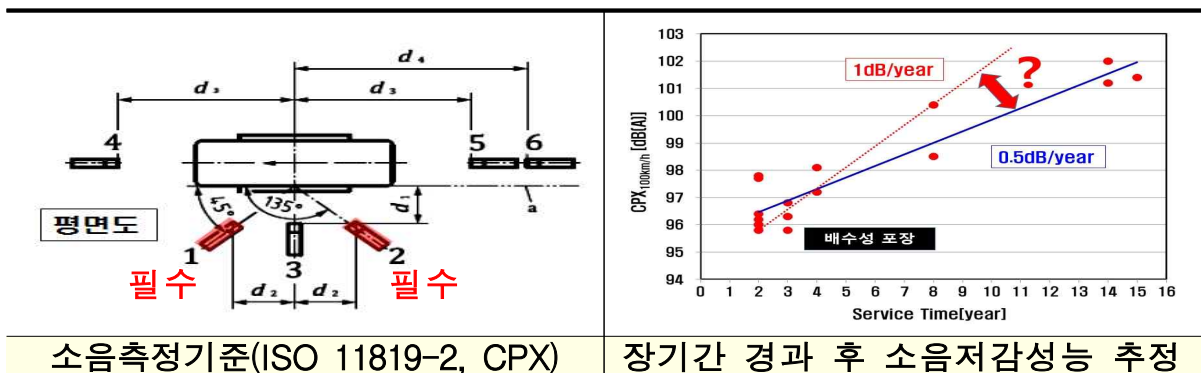
- 일반포장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포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, 공법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·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,
- 배수성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, 시공, 유지관리 등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통합하여 발주(컨소시엄)하는 방식도 검토한다.

④ 배수성포장 소음측정기준 마련

-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(업계)하고, 확인(발주처)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(ISO 11819-2, CPX)을 준용하여 소음측정기준을 마련\*(~'20)한다.

\* '배수성포장 지침'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국가표준(KS)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 
 \*\* 시험시공, R&D 등 추가연구를 통해 소음측정기준 검증 및 개선 검토

- 한편, 장기간 경과 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하여 도입할 계획이다.



- 아울러, 협의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.
- 또한, 협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,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이다.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이다.
  - \* 추진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
-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배수성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,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도로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.”면서
  - “실시공 확대,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‘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’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국민과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김강문 사무관(☎ 044-201-39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